

4.16인권선언 제정특위 촉진회의 결과 정리

2016년 2월 3일 오전 10시 반, 416연대 사무실

참석: 호연, 은정, 아샤, 종걸, 두인, 승기, 미류, (4.16연대 미디어위원회 최종호 참관)

1. 416연대 운영위 워크숍 결과 등 상황과 계획 공유함. 5일부터 '진상규명 방해 행위 중단과 성역없는 조사/수사 보장, 특별법 개정 촉구 범국민 서명'을 시작하기로 함.

2. 선언인 현재 1,364명 (오프라인 포함). 등록이 늘어날 때는 하루에도 100명 이상 등록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거의 등록이 없음. 프로젝트 진행의 효과가 있는 만큼 앞으로 적극 홍보해야.

3. 기본사업 점검

1) 설 전에 선언인들에게 뉴스레터 발행. 설 인사도.

2) 홈페이지. 새로운 계정 만들기로. 노란리본셀카 프로젝트 계속 진행하고 홈페이지에 구현하기로. 구글 설문조사는 최신양식 쓰지 않아야. 2주기 프로필 사진 변환 프로그램 제작 타진하기로. 선언인들의 약속은 광고판 형식으로 게시. 인권선언 내용을 알리는 방법으로 봉봉게임 류를 만들기로. (두인, 아샤, 은정이 기획)

4. 기획사업 점검

1) 페이스북 페이지 개설함. 설 연휴 전까지 좋아요 늘려야. 설 연휴 이후에 광고 신청하기로. 페이지 통해 프로젝트 제안, 진행상황 소개, 제정특위 활동 소식 등 알리기.

2) 노란리본셀카 캠페인은 계속 진행하되 구체적인 미션 포함하기 (설 연휴에 우연히 만난 노란리본, 민중총궐기에 나온 노란리본 등 했던 사람도 다시 할 수 있도록) 인스타그램 진출도 검토.

3) 포스터 붙여 hands up! 배송 신청인들에게 1차 발송. 2차로 인권시민사회단체와 416연대 회원, 텀블벅 후원인들에게 발송. 붙여 인증샷 제안. 비치 가능한 서점 주소 확인하고 배송. 동네 카페나 술집 등은 우리가 직접. 생협 매장 비치 추진.(호연-김우 상임운영위원). 책갈피와 스티커 판매 추진.

4) 만인낭독 프로젝트 <소리내 4.16인권선언> '함께 손을 잡자, 함께 행동하자'는

카메라 보면서 한 번 더 읽어달라고 요청. 설 연휴 직후부터 2주기까지 이어가기로 함. 2주기 선언인대회에서 참여자 전체가 낭독하는 영상까지 담은 후 기록영상물로 편집영상 제작하기로 함. 다양한 방식으로 낭독을 기획하면 더욱 좋음. 대중적으로 제안하되 구체적으로 조직을 직접 해야 함.

* 광화문에서 읽기(호연), 청각장애인(미류), lgbt 인권포럼, 지보이스, 장애여성 공감(종걸), 반올림 등 농성장(은정), 416가족들(미류), 활, 콜트콜텍 농성장(두인) 천주교인권위 운영위(은정) 코쿤 상임활동가들(승기) 등 / 그외 추진단 중 낭독 조직해줄 만한 분/단체들 리스트업(호연) 하고 연락 분담

5) 해설서 제작 배포. 설 연휴 다음주에 인쇄 들어갈 예정. 416연대 회원들에게 포스터 발송할 때 1부씩 발송할 것과 2주기까지 계속 배포할 것을 염두에 두고 5천 부 제작 검토하기로. 견적 알아본 후 인권재단사람에 후원 요청.(은정) 민주노총에 배포와 후원 요청하면서 알리는 계기로 삼기로. 선언문 해설에 말문을 트는 말풍선 준비(아샤). 기존 소책자에 들어간 열쇳말 해설은 온라인 안내 하고 해설서에 넣지 않는 방향으로 성안팀에 제안하기로. 설연휴 다음주에 추진단/선언인단에 문자메시지 발송하여 배송 신청. 포스터 배송과 해설서 배송 신청을 하나의 설문 폼으로 만들어 일괄 처리하기로.(호연)

6) 영문 번역본. 국제인권네트워크 통해 해외 단체 참여 모색. (덕진, 승기)

7) 정보공개청구운동 워크숍 2월 23일(화) 오후 3시로 추진. 416연대 사무실로. 정보공개센터에서 2명 발표. 진상규명위 이태호 위원이 진상규명 현황과 과제 발표. 승기가 진실에 대한 권리 관련 국제인권논의 소개 발표. 이후 전체 토론하면서 기획 아이디어 나눔.

8) 1만 선언인대회. 4월 16일(토) 범국민대회 1시간 전 사전대회 형식으로 추진. 전체 낭독 시간 가짐. 선언인대회 홍보 겸 마지막 선언인 등록 독려 위해 3월 중 신문광고 모금운동 추진하기로 함.